

진실과 감동만 통한다 '인플루언서 마케팅'

인플루언서는 가까이 있다

캘리 키번 지음, 최소영 옮김

1973년 미국은 명예의 전당 현역자인 미식축구 쿼터백 조 내머스에 대한 이야기가 세간의 화제였다. 조 내머스는 스포츠계 거물이었다. 하인즈 광고에 그가 팬티스타킹을 입고 출연하자 대중의 관심은 폭발적이었다. 흔히 말하는 그는 오늘날로 치면 '인플루언서'였다.



오늘날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말 가운데 '인플루언서' (Influencer)라는 용어가 있다. 일반적으로 영향력 있는, 영향력을 주는 사람을 일컫는다.

오늘날 인플루언서의 정의는 간단치 않다. 특정 브랜드를 홍보하는 운동선수나 유명인의 범위를 넘어선다. 이보다 더 확장적인 개념이 있는데 대중에게 알려진 연예인은 물론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다양한 SNS에서 수많은 팔로우를 거느린 크리에이터까지 아우른다.

기업들은 인플루언서의 존재와 영향력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 오늘날은 이사회에서 열리는 경영진의 회의에서 중요한 아이디어나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다. 직원들의 활약은 경계가 없으며 브랜드 외부에 있는 지지자들도 기업의 이미지와 성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세계를 다룬 책 '인플루언서는 가까이 있다'는 누구나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자는 마케팅 대행사의 대표이자 브랜드 전략가인 캘리 키번으로, 지난 20년간 수백 종의 브랜드 스토리 발굴을 견인했던 전문가다.

저자는 인플루언서는 어디에나 있고 특히 가장 가까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1억7000만명 넘게 보유한 인플루언서인 켈달 제너가 출연한 광고. <이콘 제공>

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직원이나 회사 내 다른 관계자들이 모두 해당할 수 있다.

인간은 상품을 구매할 때 자신이 속한 '부류'나 공동체 내 구성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경향이 있다. 때문에 다양한 인플루언서들과 제휴해 자신들의 브랜드 스토리를 예찬할 '영향력 엔진'을 설계할 수 있다. 저자는 이런 브랜드 친화적인 인플루언서를 '브랜드 예찬자'라고 한다.

"브랜드 예찬자들은 브랜드 스토리에 고유의 관점과 아이디어 및 해석을 가미한다. 그들의 기여로 브랜드 스토리는 끊임없이 감동적인 곡으로 변주되며 브랜드에 활기를 더한다. 이런 사람들과 손을 잡으면 날이 갈수록 더 많은 관심을 끌고 새로운 스토리를 계속해서 써나갈 수 있다."

저자는 브랜드 예찬의 구성요소를 세 가지로 이야기한다. 다시 말해 브랜드 예찬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다

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에서 출발하라'이다. 많은 이들은 가짜 뉴스와 스펀지 일, 과장된 리뷰에 지쳐 있다. 브랜드가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진실되고 말하고 보유하고 있는 가치에 중점을 두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브랜드의 감동 포인트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업종이나 업체도 감동 포인트는 있기 마련. 브랜드 개성을 살릴 수 있는 요소를 발굴하면 설득력 있는 브랜드 스토리를 구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내부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브랜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부 사람들이다. 스토리 예찬은 기업 내부에서 외부로 퍼져나간다. "브랜드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들의 진실된 모습을 자랑스럽게 드러내면 신뢰가 기반이 된 스토리"에 대한 칭찬이 가능하게 된다는 논리다. <이콘·1만5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핫하고 힙한 영국=영화 '킹스맨'** 속 콜린퍼스와 같이 전형적인 신사의 모습을 한 나라, 해리포터와 셜록홈스의 나라, 축구 경기가 생사보다 중요하고 유머를 중시하는 나라. 영국보다 영국을 잘 아는 권석하 칼럼니스트가 1982년 영국으로 건너가 현재까지 보고 듣고 느낀 영국의 이야기를 책으로 펴냈다. "영국에는 여러분이 모르는, 딱히 집어서 말할 수 없는 저력과 매력 이 분명 있습니다"라고 단언하는 저자는 영국의 정치, 역사, 문화, 건축 등 다양한 분야를 소개한다. <유아이북스 1만6800원>



▲**감정연습을 시작합니다=청소년기, 공부보다 중요한건 감정연습이다.** 감정의 변화가 낮설고 힘든 청소년들을 위해 지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가가 감정을 유지하는 법을 소개하는 책을 펴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쉽게 '짜증나!'라고 말한다. 다양한 감정이 있지만 내 감정을 알지 못하기에 감정의 이름을 찾지 못하고 단 순하게 표현해 버리는 것이다. 내 감정이 무엇인지, 비슷한 다른 감정과 어떻게 다른지 알게되면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창비 1만3000원>

▲**생물은 왜 죽는가=우리는 왜 늙어야 하며 왜 죽어야 할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단순 호기심이 더해진 질문에 수명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 고바야시 다케히코는 '죽음'의 의미를 생물학적 관점에서 풀어낸다.

인류와 AI의 공존부터 두렵지만 외면할 수 없는 죽음까지, 저자는 쉽고 재밌게 현대 생물학의 최첨단 지식을 더해 조근조근 설명한다. <허클베리북스, 1만7000원>

▲**교사에게 강요된 침묵=국민이라면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참정권에 대해 금지 조항을 받고 이는 집단, 수많은 범조항에서 '학교 교원'은 투표권을 제외한 모든 참정권에 접근할 수 없다.** 이에 저자는 교사 참정권이 교육에 방해가 될 것이라 예단하는 것은 역설이라고 말하며 7색선에 걸쳐 교사 참정권 회복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한다. <살림터·1만8000원>

어린이·청소년 책



▲**뽀뽀한 회장 김건우=새로운 이웃이 이사오면서 이른 아침 출근시간이면 안녕 빌라 주차장은 난리통이 된다.** 엉겁결에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빌라 대표가 된 나동지의 할머니, 학교에 갔더니 솔잎이는 교실에서 키우던 금붕어가 죽어버렸으니 회장을 그만두겠다고 한다. 김건우는 '금붕어 사건'의 비밀을 풀겠다고 회장이 됐다. 모두가 엉망진창이라 말하지만 나동지는 의외로 모든지 잘 풀릴 것만 같은 예감이 든다. <서유재·1만3000원>

▲**배고픈 멧돼지=산골에 사는 미호와 미소, 부모님이 시장에 가신 사이 감자를 구워먹는다.** 그때 들려오는 밭소리, 문 구

멍으로 내다보니 배고파서 먹이를 찾다 산 아래로 내려온 멧돼지가 어슬렁거리고 있다. 미호와 미소는 멧돼지에게 먹이를 나눠주고 구수한 냄새를 맡고 찾아온 산 골짜기 동물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꿈터·1만3000원>

▲**레벨업 브라더=주인공 추어진은 백태랑을 보면 화가 난다.** 본인 이름을 꼭 '추어탕'이라 부워 부르면 괴롭히는 백태랑은 쳐다보지만 해도 입지만 정작 말 한마디 쏘아붙이지 못한다. 그저 이름을 지어 준 할아버지와 동네 추어탕 가게만 원망할 뿐이다. 그러다 우연히 백태랑에게 양값을 할 기회가 생긴다. <잇츠북어린이·1만3000원>

네덜란드 일으켜 세운 청어...유럽 경제 바꾼 결정적 장면들

그림으로 배우는 경제사

이강희 지음

날것을 즐겨 먹지 않는 유럽인들도 굴만큼은 열광했다. 로마 시대부터 이어온 전통으로, 굴은 최고의 사치품이었고 귀족과 부르주아들의 전유물이었다. 장 프랑수아 드 트로이의 '굴요리와 함께하는 오찬' (1734)은 귀족들이 굴을 '흥청망청' 즐기는 장면을 잘 보여준다.



또 하나의 그림, 네덜란드 작가 안 스테인의 '굴을 먹는 소녀'는 네덜란드의 국력이 인근 국가에 비해 강했음을 보여준다. 굴이 귀족이 아니라도, 평범한 가정의 소녀가 굴을 먹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림으로 배우는 경제사-부의 절대법칙을 탄생시킨 유럽의 결정적 순간 29'는 지금의 유럽 경제를 만들어

낸 역사적 장면들을 그림과 함께 소개하는 책이다. 저자는 20년 넘게 금융업계에 근무하고 있는 이강희다.

책은 2부로 구성돼 있다. 1부 '유럽 부의 지도를 그려나간 재화'에서는 유럽의 경제 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바꾸어 놓은 재화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네덜란드가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것은 '청어' 덕이었다. '진주 귀고리 소녀'로 유명한 네덜란드 작가 요하네스 페르메이르의 '델프트 풍경' 속에는 청어를 전문적으로 잡는 배 '부스'가 정박된 모습이 묘사돼 있다. 깊숙한 발트해에서 살던 청어가 새로운 터전을 찾아 북해로 오자 네덜란드인은 기회를 잡기 위해 부스를 타고 바다에 나갔다.

책에서는 왜 아이슬란드와 영국이 '대구' 때문에 전쟁까지 벌여야 했는지, '은'을 통해 아테네는 어떻게 고대 그리스에서 제일가는 부자가 될 수 있었는지 등에 대해 이야기 한다.

또 루벤스가 동시대 다른 예술가들에 비해 다작을 할

수 있었던 비결로 '분업화'를 꼽으며, 제조업의 혁신을 낳은 분업화를 통해 자본주의 속성을 설명한다.

그밖에 독일 부의 기반이었던 '맥주', 대항해시대의 신호탄이 된 '후추'에 대한 이야기가 다채로운 그림과 함께 펼쳐지며 목재, 커피, 용병, 정보력, 소금, 올리브 등에 대한 내용도 다룬다.

2부 '유럽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놓은 사건'에서는 네덜란드 경제를 뒤흔든 튜립버블과 이를 다룬 안 브뤼엘의 '튜립버블에 대한 풍자화' 등의 작품을 소개한다. 사탕수수 세상을 피와 탐욕함으로 물들였다. 노예 무역을 번성시켰기 때문이다. 산업혁명 이후 노예무역은 더욱 기승을 부렸고, 윌리엄 클라크의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는 노예들', 윌리엄 터너의 '노예선' 등의 작품이 이를 잘 보여준다.

또 세계 최초의 자유무역지대인 한자동맹의 탄생, 유럽을 구한 농업혁명, 패권의 대이동을 가져온 갈레해전 등도 다룬다. <인물과 사상사·1만85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